

「구미시 노동 기본 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정지원 의원 외 1인

2. 찬 성 자: 김낙관 의원 외 10인

3. 제안이유

- 구미시민의 노동권익을 보호·증진하고 노동자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노동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4. 주요내용

- 노동자의 권리, 시장의 책무 등(안 제1조~제6조)
- 노동기본계획 및 노동권익 보호·증진(안 제7조~제12조)
-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협력관 등(안 제13조~제16조)
- 지역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구축 등(안 제17조~제18조)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 - 「대한민국헌법」 제32조
 -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
 -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3조, 제4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노동기본계획의 수립, 노동 존중 문화 확산, 지역 사회의 대화 창구 마련 등을 통해 구미 시민의 노동권익을 보호·증진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7조에 따라 3년마다 노동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하여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또한, 안 제15조에 따라 노동협력관 제도를 도입해 임금체불·노사갈등·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노동 쟁점 사항에 대응토록 하여 노동 관련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아울러, 지역 사회의 대화 창구로서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지정하여 노동 정책 수립의 정당성과 협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향후 관련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노동협력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의 세부 운영 지침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.

- 또한, 안 제2조제4호다목의 '청소년'과 안 제4조제4항의 '청소년 (연소자)'의 정의 및 연령 기준이 관련 법령¹⁾마다 달라 조례 적용 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, 용어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- 안 제17조제2항의 '일자리창출분과위원회'는 「구미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상 명시된 조직이 아닌 협의회 내부 조직이므로 조례에 따른 명칭 사용이 필요해 보임.

1)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

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1호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.

「대한민국헌법」 제32조제5항

제32조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.

「근로기준법」 제66조

제66조(연소자 증명서)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